

人生 哲學者「딜타이」 그의 生誕 百週年을 보내면서(五)

田元培

(三) 歷史 理性 批判의 課題

딜타이는 그의 『精神 科學 序說』中에서 前述한바와같이 精神 科學의 原理를 칸트의 認識論的 原理에 對置하여 確立한뒤 이어서 『歷史 理性 批判』의 課題는 精神 科學 序說의 思想과 內面的 關聯을 가지고 發展된 思想이다. 精神科學의 基礎確立을 意識의 事實속에 探求한 딜타이는 必然的으로 情密 心理學에 轉向하여 그 가운데에서 精神 科學의 科學的 獨立性的 根據를 찾았다. 그러나 여기서 딜타이가 問題에 올린 것은 決코 說明的 分析的 心理學이 아니라, 人間의 意慾과 感情과 表象의 具體的 全過程을 對象으로 하는 精神科學的 心理學이었다. 그러나 一定한 具體的 個人, 民族, 時代의 精神生活에 對하여 具體的 內容을 가진 述語를 나릴 수가 어떻게 하여 可能的한가? 또 精神生活過程에 對하여 一定한 具體的 概念規定을 나릴 수가 있다 치드래도, 이 概念規定이 어떻게 하여 直接的 確實性을 獲得할 수가 잇을가?

그리고 우리는 한 거름 더 나가서 이 概念規定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 歷史現象의 多樣態를 이해할 수가 잇을가? 딜타이는 以上一聯의 諸問題에 對하여 『理性批判의 課題』란 名稱을 附與하였다. 그러면 딜타이는 어떻게 하여 이 課題를 解決할라고 하였는가?

그는 이 課題를 解決키 爲하여 精神 科學의 方法으로서 了解라는 새로운 概念을 案出하였다. 딜타이에 依하면 精神 科學에 잇어 서는 精神過程에 對한 方法的 理性認識이 必要 한게 아니라 『追體驗』다시 말하면 精神過程의 『了解』가 必要하다고 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精神 科學에 잇어 서는 어떠한 主觀과 客觀이 分離하여 잇어서 主觀이 客觀에 對하여 概念的으로 類推 判斷을 나리는 것이 아니라. 精神 科學에 잇어 서는 主觀은 客觀이 되고, 客觀은 主觀이 되어야 한다. 主觀과 客觀과는 同一한 것이다. 生命과 生命과의 符合이다. 이 了解란 概念은 精神 科學의 方法的 原理로서 精神 科學을 成立

시키는 重要한 根本概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人間의 實踐的 生活過程속에서 이 了解의 原始形態를 發見한다. 例를들면 사람들은 言語와 文字와 其他모든『象徵』을 媒介하여 서로 무엇을 要求하는가를 理解한다. 또 極히 單純한 例를들면 어머니는 어린애의 우는 소리를 듣고 어린애가 젖을 달라는 것을 理解한다. 이것이 了解의 原始形態다. 그런데 了解에는 『表現』이 必要하다. 그리고 表現은 반드시 一定한『意味』을 表現하는것이니 前例의 어머니는 어린애의 우는 소리(表現)속에 젖을 달라는 意味를 了解한다. 어린애의 우는 소리를 듣고『오냐오냐, 배가 고파서 그런가! 어이 세상에 내 새끼가!』하고 젖꼭지를 어린애의 입에다 물려주는 어머니와 어린애의 사이는 차디찬 概念的 認識의 關係가 아니라, 곧 生命과 生命의 符合이다. 우름 소리(表現)를 通하여 어머니의 生命과 어린애의 生命이 한 몸이 된 것이다.

了解는 이러한 日常生活에 나타나는 原始狀態로부터 有限에 있어 서의 無限의 了解에 이르는 無數한 階段이 있다. 우리는 古代의 遺物속에 옛날사람들의 生活樣式을 了解하고 石佛속에 一定한 宗教的 精神을 了解한다. 그 뿐 아니라 우리는 道德, 法律, 國家, 宗教, 藝術, 哲學家운데에 人間의 客觀的 精神을 了解한다. 이와 같은 人間의 客觀的 精神의 表現이 精神 科學의 對象이요, 또 이러한 表現의 了解가 곧 精神 科學의 方法이다. 그러므로 表現과 了解가 不 卽 不離의 密接한 關係가 있듯이 精神 科學에 있어 서는 方法과 對象과는 內面的 必然的 關聯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에딜타이는 精神 科學上에 了解란 概念을 導入하여『精神 科學에 있어 서의 歷史的 世界의 構造』가 어떻게 하여 可能하냐라는 『歷史 理性 批判의 課題』를 解決하였다.

이로 因하여 딜타이의 學問 上功績은 칸트의 純粹 理性 批判에 比□할만한 地位를 차지 하였다. 아니 어떤 意味에 있어서 딜타이는 칸트로부터 始作한 學文의 方法的 反省을 自然 科學 領域에서 精神 科學의 領域에까지 擴大시켜서 칸트를 超越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